

전주 혁신성장 견인 국책사업 발굴 나선다

전주시정연구원, 새정부 정책 대응 ‘국책사업발굴 추진단’ 운영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이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국책사업발굴 추진단을 운영한다.

전주시정연구원은 1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개 새 정부 국정운영 방침에 대응한 국책사업발굴 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연구원은 국책사업 발굴을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10여 개의 국책사업 발굴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전주시 국책사업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 중심이면서 전주시 행정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발굴된 국책사업의 구체화를 할 국책사업발굴 추진단을 꾸렸다.

국책사업발굴단은 광역도시·SOC·안전 분야, 신산업·경제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그리고 복지·환경분야와 4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위원의 구성은 각 분과별로 시내외의 전문가, 대학교수, 국책연구원, 출연기관 등 국책사업 발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실무중심의 전문가로 채웠다.

국책사업발굴단의 중점 발굴 방향은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해 전주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거점으

로 거듭날 HW·SW 인프라 구축 △전주시의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혁신성장동력 마련 △체류형 K-컬처 중심도시로서의 대전환 기반 마련 △탄소중립 산업경제 전환 선도도시 구축 △시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도시 기반 강화 등이다.

특히 연구원은 5급 3특에서의 전주시 역할과 인공지능 대전환, 퍼지컬IP 대응, 탄소·수소·바이오산업 등 신산업의 융합고도화, 글로벌 소프트웨어, 한류콘텐츠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산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역성장 엔진 등 국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5급은 5개의 초광역권(수

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가리키며,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새정부에서는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며 특별자치도는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운영방침에 부합하며 전주시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대형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연구원에서 전주시 발전을 견인할 기본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전주시 혁신을 선도할 사업발굴을 수행하는 등 전주시의 싱크 탱크(Think Bank)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싱가포르 최대 여행박람회 참가

전주시, 관광 홍보관 운영

전주시가 재방문율이 높은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 최대 여행박람회를 찾았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홀에서 열린 ‘싱가포르여행박람회(NATAS Holidays 2025)’에 참가해 전주시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싱가포르여행협회(NATAS)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기관과 여행사, 항공사 등 80개의 유관기관과 개별관광객 등 관광객 10만 명이 참가하는 등 싱가포르 최대 규모로 열리는 행사이다.

시는 박람회장에서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와 연계해 한국홍보관 내 체험 이벤트존을 운영했다.

이벤트존에서는 △전통매듭팔찌 만들기 △부채 캘리그래프 체험 이벤트를 운영해 현지 관람객들에게 전주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전주관광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비짓전주(VISIT JEONJU)’ 팔



로우 이벤트를 진행해 홍보관 방문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인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전주 관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지 방한상품 판매 상의여행사인 ‘CTC Travel’, ‘Chan Brothers’, ‘Eu Holidays’ 등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주 타깃으로 하는 국내 참가 인바운드 여행업체와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지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 관광콘텐츠 정보 등을 제공했으며, 실질적인 상품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주시, 9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전주시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전주시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통해 접수 받는다 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6학기

이내)과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이다. 시는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2025년 상반기에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이자 지원대상 학자금 대출은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며, 생계비 대출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희망자는 재학, 휴학,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전주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 적격 여부를 점검한다.

이어 ‘전주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을 향후 12월까지 확정해 대출계좌와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여부와 상환금액은 지원 완료 후 오는 12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대출계좌별로 지원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전념하

는데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간 받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 발생한 이자액을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형태로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그간 전주시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생활비 대출이자도 지원한 데 이어, 올 상반기부터 졸업 후 5년 이내 졸업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한 바 있다”며 “전주시 청년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18일 오전 6시 ‘2025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전주시,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 실시

전주시는 18일 오전 6시 ‘2025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시 또는 국가 위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전 직원의 신속한 응수 및 대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이날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18일부터 4일간 을지연습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025년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지자체뿐 아니라 군·경, 주요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을지연습 기간 전시 직제

편성 및 전쟁기구 창설 훈련과 더불어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기관 소산 이동 △민방공 훈련 등 실천과 같은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신념으로 훈련에 임하겠다”면서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팔복동 새마을부녀회 경로당 어르신들께 간식 나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현정)는 18일, 지역 내 백수경로당과 덕수여자경로당을 방문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 70여 명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시원한 수박과 생수를 전달하며 무더위 속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폭염에 대비한 건강관리 수칙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현정 새마을부녀회 회장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된다”며 “앞으로도 작은 정성을 나누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 가상융합 투자유치 기업 성장 지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 이하 진흥원)이 ‘전북 가상융합 투자유치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운영사인 ‘와이앤아처(주)’와 선정기업 ㈜편잇과 ‘올모스트윌웨이즈’, 진흥원이 협력해 지역 가상융합 산업의 투자유치와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된 (주)편잇과 ‘올모스트윌웨이즈’는 지난 7월 3주간의 모집공고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주)편잇과 ‘올모스트윌웨이즈’는 첨단 AI 비전을 활용한 실시간 평가시스템과 실감형 XR 군훈련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동아시아(태국·말레이시아) 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며, ‘올모스트윌



웨이즈’는 ‘케이터우겔즈’ 글로벌 K 드라마 제작과 AI기반 드라마·영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기업별 1:1 현장 진단 및 전문가 매칭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투자유치 멘토링 △IR 스피칭 트레이닝

△IR DECK 제작 지원 △1~3차 IR 데모데이 발표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콘텐츠 및 시드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운영사인 ‘와이앤아처(주)’는 국내·외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로 서울 본사와 광주·대전·제주·대구 등 국내 지사, 태국·베트남·중국·스위스 등 해외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허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북 메타버스지원센터는 지역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안정적인 재정·인력 기반을 지원하는 가상융합 지원 체계로 전환을 완료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기업이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성'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